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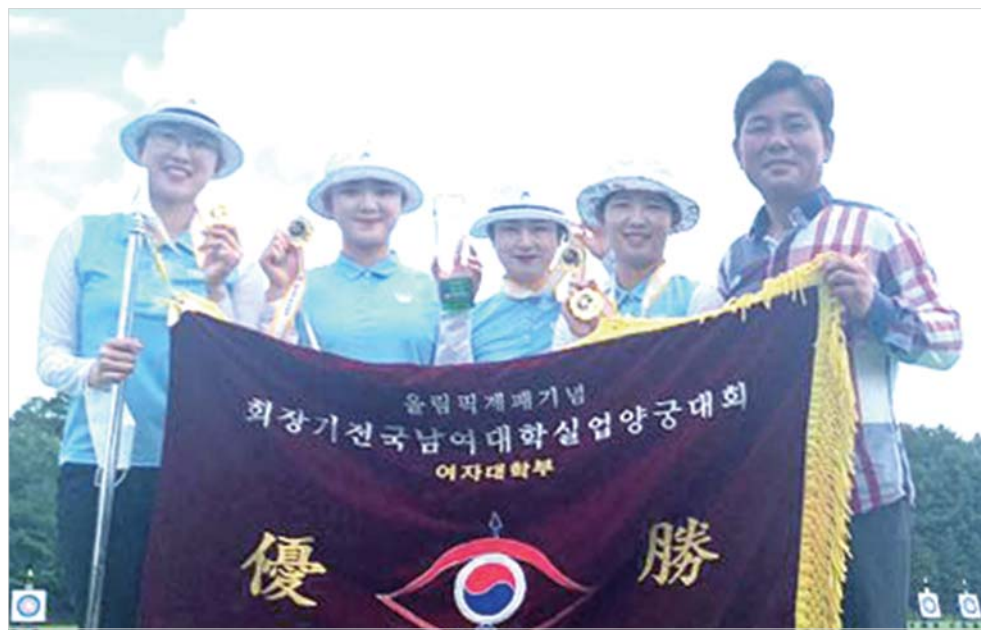
광주여대 안산 세계신기록 썼다

회장기양궁 50m 351점 골드수 앞서 기록 인정
70·60·50·30m·단체·혼성 1위 '6관왕' 석권
조선대 이진용 금1 은2 동2...오늘 일반부 경기

광주여대 안산(1년)이 제37회 올림픽제패 기념회장기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쓰며 대회 6관왕에 올랐다. 안산은 3~5일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리커브 대학부 50m에서 351점을 기록,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대회신기록 겸 한국타이 기록이기도 하다. 점수로는 지난 2015년 정경이 세운 기록과 타이였지만, 안산이 골드(엑스텐·10점 과녁 중앙)에서 정경은보다 3개 더 앞서 세계양궁연맹이 세계신기록으로 인정했다. 안산은 10점(10s) 과녁에 총 27개의 화살을 쏘았으며, 이중 7개가 골드(Xs)에 명중했다. 안산은 70m, 60m, 30m에서도 모두 1위에 올랐고, 단체전과 혼성전에서도 1위를 거머쥐며 대회 6관왕을 차지했다. 안산은 70m에서 342점, 60m에서 347점을

기록했다. 30m에서도 360점으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1위에 올랐다. 안산은 총점 1,400점을 기록, 이 부문에서도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세계양궁연맹 기록상 1,400점을 쓴 선수는 안산이 세번째이며 한국선수로는 박성현에 이어 두번째다. 안산은 정시우(4년), 이세현(3년), 김민서(2년)와 호흡을 맞춘 단체전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광주여대는 8강에서 동서대를 5-1(57-56 55-55 59-55)로, 4강에서 목원대를 5-1(58-53 57-57 57-54)로 꺾고 결승에 올랐고, 결승에서 경희대를 5-1(56-50 55-55 56-53)로 눌러 1위를 차지했다. 안산은 혼성전에서 조선대 이진용(2년)과 호흡을 맞춰 6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8강에서 경남에 5-4로 승리한 뒤 4강에서는

인천을 5-3으로 제쳤다. 그리고 결승에서 대구에 5-1(35-34 36-36 38-36)로 승리하며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아쉽게도 안산은 개인전에서 메달을 놓쳤다. 단거리와 단체전, 혼성단체전까지 치른 뒤 5일 열린 개인전 16강에서 안동대 심다정에 슛 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5-6으로 져 탈락했다. 지난달 2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끝난 2020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태극마크를 지킨 안산은 성인무대 데뷔전인 제38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에서 4관왕을 달성한 뒤 이번 대회에서도 6관왕을 차지하며 한국 여자양궁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안산은 "7관왕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놓쳐 아쉽기는 하지만 '사대에선 항상 최선을 다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며 "이번 대회는 나 자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기부여가 됐다. 기보배(광주시청), 최미선(순천시청) 선배의 뒤를 이어 '전국 최강'에 빛나는 광주여대 전통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여대가 3~5일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37회 올림픽제패기념회장기대학실업양궁대회 대학부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안산은 대회 6관왕에 올랐다. 왼쪽부터 안산, 김민서, 이세현, 정시우, 김성은 감독. /광주여대 제공

김성은 광주여대 감독은 "팀 창단 20년을 맞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 그 의미가 크다"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오는 9월 종합선수권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을 대비해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과 혼성전 금메달을 합작한 조선대 이진용은 남대부 경기 50m(343점)와 30m

(357점)에서 각각 2위, 90m(323점)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이진용은 올림픽라운드로 치러진 개인전에서 4강까지 진출했으나 고태경(배재대)에게 3-7(28-28 27-29 28-30 28-27 27-28)로 패해 3위를 차지했다. 6일부터는 일반부 경기가 진행된다. /최진화 기자



5일 경남 창원시 아라미르 골프 앤 리조트에서 열린 2020 KPGA 코리아투어 개막전 우승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 마지막 날 이지훈이 연장전에서 버디를 잡으며 김주형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후 동료 선수들의 축하 물세례를 받으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지훈 KPGA 코리아투어 개막전 우승

부산경남오픈 최종일 5타차 뒤집고 연장 승부

이지훈(34)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뚫고 뒤늦게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시즌 개막전에서 최종일 몰아치기에 이어 연장전 우승을 일궈냈다. 이지훈은 5일 경남 창원 아라미르 골프&리조트(파72)에서 열린 우승 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총상금 5억원) 최종일 연장 접전 끝에 우승했다. 최종 라운드에서 9언더파 63타를 때려낸 이지훈은 4타를 줄인 김주형(18)과 4라운드 합계 21언더파 267

타로 공동1위가 되면서 연장전에 돌입했다. 그리고 18번 홀(파5)에서 치른 첫 번째 연장전에서 3m 버디를 잡아내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주형은 2m가 채 되지 않는 버디 퍼트를 놓쳤다. 우승 상금은 1억원. 지난 2017년 제주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따낸 이지훈은 2년 9개월 만에 2승 고지에 올랐다. 2018년 상금랭킹 59위, 지난해에는 상금랭킹 79위까지 떨어졌던 이지

훈은 슬럼프 극복과 함께 이번 시즌 코리아투어에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할 발판을 마련했다. 첫 우승 때는 악천후 때문에 최종 라운드까지 취소되는 바람에 54홀 스코어로 챔피언이 되는 행운을 누렸던 이지훈은 두 번째 우승은 화려한 버디쇼와 짜릿한 연장전 승부로 따냈다. 3라운드에서 선두에 올라 코리아투어 프로 선수 최연소 우승에 도전장을 내며 주목을 끌었던 김주형은 식어버린 퍼트 감각 탓에 고전했지만 마지막 18번 홀에서 4m 이글 퍼트를 잡아넣어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가는 독신을 보였다. /연합뉴스

손흥민 리그 10호골 '정조준'

4시즌 연속 EPL 두자릿수 득점·도움 재도전

울 시즌 '개인의 영광' 만남은 손흥민(28·토트넘)이 '악역의 팀'이 된 에버턴을 상대로 4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에 도전한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7일 오전 4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에버턴과 2019-2020시즌 프리미어리그(EPL) 33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토트넘 지상과제였던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티켓 획득은 거의 '물거품'이 됐다. 토트넘은 지난 32라운드 셰필드 유

나이티드 원정에서 충격의 1-3 패배를 당해 승점 45점으로 9위에 머무르고 있다. 6경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안정권인 4위 첼시와는 승점 12점,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는 승점 10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제 손흥민이 남은 시즌 거둘 수 있는 성과는 '개인 기록' 뿐이다. 손흥민은 올 시즌 공식전 16골, 정규리그 9골을 기록 중이다. 지난 2월 애스턴 빌라와의 26라운드에서 멀티골을 폭발한 뒤 다섯 달

가까이 골 맛을 보지 못했다. 애스턴 빌라전에서 입은 팔 골절 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리그 중단 등으로 2018-2019시즌 12골을 넣은 바 있다. 또 세필드전에서 해리 케인의 만회골을 도와 시즌 도움을 9개로 늘린 손흥민은 도움을 1개만 더 올리면 두 자릿수 도움을 기록하게 된다. /연합뉴스

전국체전 1년 순연 개최 지자체 협의

전남 2023년 개최

올해로 101회째를 맞이하는 전국체육대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는다. 오는 10월 경북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01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내년 개최하면서 울산(2021년), 전남(2022년), 경남(2023년), 부산(2024년)에서 열릴 체전도 각각 1년씩 순연하는 것으로 지자체간 의견이 모아졌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재로 전국체육대회 개최 예정인 5개 지자체(경북, 울산, 전남, 경남, 부산)와 함께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체육대회를 1년씩 순연해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개최지인 경상북도가 지난 달 10일 중앙재난안전대

책본부 화상회의에서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전국체육대회를 1년씩 순연 개최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관련 지자체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례적 현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경상북도의 사정을 고려해 대회를 순연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지자체가 전국체육대회 순연 개최에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방역 당국과 협의를 통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체전 순연 합의에 따라 전남은 2023년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된다. /최진화 기자

김민선 통산 5승 달성
맥클·용평리조트 오픈 우승

김민선(25)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서 1,168일 만에 우승, 통산 5승을 달성했다. 김민선은 5일 강원도 평창군 버치힐 골프클럽(파72·6,434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맥클·용평리조트 오픈(총상금 6억원)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한 김민선은 공동 2위 이소영(23)과 성유진(20)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억 2,000만원이다. 2년 연속 이 대회에서 준우승한 이소영은 공동 2위 상금 5,850만원을 받아 시즌 상금 3억5,543만원을 기록, 상금 1위였던 김효주(25)의 3억 2,454만원을 제치고 상금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문향고 김하경·김미수 금빛 물살

화천평화배조정대회 1위 금2 은1 동1 종합준우승

문향고가 올 시즌 첫 대회인 제14회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에서 여고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문향고는 3~5일 강원도 화천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14회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여고부에서 예산여고에 이어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중단된 뒤 열린 올 시즌 첫 조정대회다. 중학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 4개부 34개 종목에 전국 59개 팀 4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김미수(2년)와 김하경(3년)이다. 김미수는 여고부 경량급싱글스컬(L1X)에서 8분12초62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1위에 올랐다. 2위는 예산여고 유진(8분17초49), 3위는 호산고 김나은(8분18초97)이 차지했다. 김미수는 경량급더블스컬(L2X)에서 김보빈(3년)과 호흡을 맞춘 결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미수-김보빈조는 8분02초00으로 호산고 김언지-김나은조(7분54초19)에 이어 두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3위는 예산여고 유진-김유진조(8분13초24)에게 돌아갔다. 김하경은 싱글스컬(1X)에서 8분00초30을 기록, 예산여고 윤혜정(8분04초90)과 영북여고 공규빈(8분11초90)을 제치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김하경은 김보빈과 팀을 이룬 더블스컬(2X)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하경-김보빈조는 서울체고 박지윤-장예진조(7분49초36), 충주여고 임은영-이수연조(7분54초50)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문향고는 종합점수 44점을 획득, 예산여고(46점)에 이어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첫 대회를 마무리했다. 고평선 전남조정협회 부회장은 "문향고가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올해 전력이 관망했는데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게 돼서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남자일반부 K유더, 남자대학부는 한국체대, 여대 및 일반부는 군산시청, 남고부는 대구전자공고가 각각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최진화 기자

문향고가 3~5일 강원도 화천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14회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에서 여고부 종합준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미수, 김보빈, 김하경. /전남조정협회 제공